다산포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정남
언론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가를 절감할 때가 있다. 이렇게 나의 무식과 무지를 새삼 깨달을 때 내가 지금 처음부터 모든 걸 새로 공부하기에는 이미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너무 멀게 느껴져 아득하기만 하다.

새해 들어 처음 읽은 책이 전봉준의 동학농민전쟁을 다룬 전진우의 장편 역사소설 '동백'(나남·2014)이었다. 이 책이 소설적 구성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보다 충실한 탓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나는 나의 동학이나 갑오농민혁명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형편없는 것인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정초부터 되게 한방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그보다 더 참담했던 경험은 작년 연말에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임종국상(林鍾國賞)의 시상을 보고 나서였다. 임종국상의 제7회 학술부문 수상자는 박찬승 교수였는데, 그 수상 저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돌베개,2013)라는 책이었다.

'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 대해 임종국상 심사위원회는 "제헌헌법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수립의 기원과 과정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해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향해야 할 바를 뚜렷이 했다"고 그 수상 이유를 밝혔다.

고백하거니와 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 거기에 뿌리깊은 역사가 있고 사연이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통탄스럽고 한심한 일인가.

나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다른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의 그것을 따라한 것으로, 그 내용이 비슷한 줄만 알았다. 그러나 헌법 제1조에 "OOO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을,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의 사상을 반영하여 자유와 평등을, 2차대전 이후에 만든 독일의 헌법은 인종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각각 헌법 제1조에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1조는 각기 그 나라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헌법 제1조로 했을까. 이 책에 따르면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의 지식인들은 공화제보다는 입헌군주제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자 이 나라 지식인들은 대한제국을 다시 복원하기보다는 공화제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울 때 그 헌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장을 첫머리에 넣게 되었다.

'민주'라는 말이 들어간 경위도 재미있다.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은 공화국에는 '귀족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공화국을 세우되 반드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민주를 갈망했고 민주의식에 투철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조항은 그대로 1944년 4월, 임시정부의 수정 임시헌장 제1조로 이어졌고, 마침내 제헌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게 된 과정도 알아보게 되었다. 대한이라는 국호는 1887년 10월, 고종이 황제의 위(位)에 오르면서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고종은 반조문(頒詔文)에서 단군과 기자 이래의 여러 나라와 마한·진한·변한까지를 모두 아우른다는 뜻에서 '대한'을 국호로 정한다고 했다.

이것이 1919년 임시정부를 세울 때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는 신석우(申錫雨)의 발의를 표결로 채택,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진 것이 그대로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에는 우여와 곡절의 역사가 담겨있고, 나라를 잃은 백성의 한(恨)과 소망이 절절이 배어있다. 저절로 그렇게 되었거나 우연히 그 조항이 탄생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헌법학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장은 고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헌법 제1조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향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 그랬었구나 하는 감회와 함께, 웬일인지 최근 들어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벅 차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자꾸만 되뇌어지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은 또 어인 일인가.

그렇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특별기고

광주U대회, 시설·운영시스템·관중 열기 삼박자 필요

김윤석
2015광주하계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올림픽을 통해 옛 소련연방의 영화를 되살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올림픽 준비에 54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 스포츠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거금을 투입했음에도 정작 개막식에서는 기술적인 실수가 나오고, 미디어촌을 비롯해 여러 시설들이 개막일까지도 어수선하게 공사 중이었는가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자원봉사자 등 많은 문제가 대회기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리는 모습이다. 시설 인프라의 부족한 준비 모습뿐 아니라 급기야 텅 빈 관중석을 채우기 위해 경기관람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유니버시아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 소치올림픽은 동계스포츠 종목의 선수를 보유한 88개국 2800여명이 참가한 대회로, 내년 우리가 개최하는 광주유니버시아드는 170개국 선수단 1만4000여명이 참가하는, 정확히 소치보다 5배 많은 규모의 대회다. 때문에 경기진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숙박, 교통, 소통 등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드러난 소치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소치는 종합스포츠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드러냈다는 점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세 가지는 첫째 시설 인프라의 완벽한 준비, 둘째 운영 시스템과 자원봉사자 교육 등 소프트 웨어의 확충, 셋째 세계인의 축제에 걸맞는 관중 확보를 말한다. 이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삼박자다. 이 삼박자를 갖추기 위해 우리 조직위원회는 지난 4년간 많은 준비를 해왔다.

대회 운영을 위한 큰 틀인 마스터 플랜, 액션플랜과 장소별, 개인별 행동 매뉴얼을 완성해 많은 현장 인력이 혼란 없이 각 기능별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 이제부터는 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해 반복적으로 리허설해보면서 완벽하게 익히는 일을 해야 한다. 경기장과 훈련장, 선수촌 등 주요 시설들은 계획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는 특히 신설 경기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치에서와 같은 미완성 공사는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도심 재건축을 통한 선수촌 건설, 유니버시아드 야구 종목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건설된 신축 야구장 완공, 수입 확대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권리 확보 등 이전 대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일무이한 성과들도 만들어냈다. 하지만, 올해는 대회를 준비하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써 실전과 같은 체제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내년 7월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최까지 남은 시간은 오늘로 500일. 선수단이 일주일 전부터 입국하고 68개 경기장과 주요 시설에 현장인력이 배치되는 것은 최소 3개월 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년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우선 대회 운영을 위한 IT 시스템, 물자, 수송 등 지원체계를 최종 점검해 실전 운영능력을 키울 것이다. 또 양질의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중단없이 지속해온 언어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해 현장에 배치할 인력을 배출해내는 최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개최도시 광주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드러낼 개폐회식 준비와 대회 중계방송을 위한 주관방송사 선정을 마쳐야 한다. 유니버시아드를 세계 젊은이들의 흥겨운 문화 축제로 만들려면 각계를 비롯해 광주시민들의 도움과 협조도 절실히 필요하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등 국제기구에서 손님들의 방문도 올해부터 대거 이뤄진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국제회의,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당장 오는 3월에 열릴 2014FISU포럼은 60개국 25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포럼으로 이때 광주의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후원사 유치를 통한 대회 재정 확충 또한 중요한 과제다. 국제기구와의 지루한 협상을 통해 대회 비용을 1천여억원 가까이 절감한 만큼 시민에게 빚을 한푼도 남기지 않는 흑자대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광주가 환경, 평화, 기술, 문화대회로 세계 스포츠계에 가치있는 유산을 남기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전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조직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500일은 유니버시아드의 성공 개최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양동옥의 S 스토리

아이의 궁금증 (1)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다. 특히 자녀의 성교육에 있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지만 그것은 마음뿐, 막상 자녀가 성에 관해 물어오거나 호기심을 표현하면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아이가 쏟아내는 물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게 된다.

다섯 살 된 아이가 버스 안에서 불쑥 "엄마, 내가 나온 구멍은 어떻게 됐어?"하고 물어오는 겁니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내가 나온 구멍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응? 내가 나온 구멍은 없어졌어?"하며 다그칩니다.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계속 알려달라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요. "집에 가서 알려줄게, 조용히 해!"라고 윽박지르고 그 상황을 모면했지만,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던 중에 어떤 어머니가 한 질문이다. 자신이 나온 구멍에 대한 궁금증은 아이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 구멍의 물음을 받아들이는 부모는 '그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 고민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된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시작으로 남자와 여자의 몸이 왜 다른지, 여자는 왜 앉아서, 남자는 왜 서서 오줌을 싸는지 등 여러 가지 궁금증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쏟아낸다.

"네가 나온 구멍이 궁금했구나. 그런데 엄마가 여기에서는 자세히 설명해주기가 어려운데, 우리 집에 가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알아볼까?" 아이는 놀이로 자신의 마음이나 욕구를 표현하기 좋아한다. 아이의 성적 궁금증 역시 놀이를 통해 설명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 아이가 궁금한 구멍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넓은 관점에서 '우리 몸에 있는 구멍'을 찾으면서 우리 몸의 다양한 구멍의 이름과 기능, 그리고 그것이 신체 일부로 모두 소중하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도화지와 색연필을 준비한다. 도화지에 아이를 누이고 엄마가 아이의 몸을 따라 선을 그린다. 이번에는 엄마가 도화지에 위에 눕고 아이가 엄마의 몸을 따라 선을 그린다. 이것만으로도 엄마와 아이의 즐거운 신체놀이가 된다. "우리 몸에 구멍이 몇 개일까? 큰 구멍도 있고 작은 구멍도 있겠지? 그 구멍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자, 우리 몸에 어떤 구멍들이 있는지 찾아볼까?" 그림이 완성되면 아이와 함께 우리 몸의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구멍을 찾아본다.

이때, 아이가 엄마에게 성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했다고 해서 꼭 엄마가 성교육을 맡아야 할 것은 아니다. 부모 중 누가 성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물론 다른 성별의 부모가 성교육자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다른 성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성교육이 가능하다. 또 부모가 함께 아이의 성교육자가 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아이가 편안하게 궁금증을 표현할 수 있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성교육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아이가 눈구멍을 시작으로 귓구멍, 콧구멍 하나하나 구멍을 찾으면, 부모는 그 구멍이 하는 일을 아이에게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명확한 설명을 해 준다. "엄마, 눈도 구멍이야?"라고 묻는 아이에게, "이렇게 깊게 파인 곳에 눈알이 들어있으니까 눈구멍이라고 한단다. 눈구멍은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먹은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구멍을 찾고, 그 구멍이 요도와 항문이라는 이름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이에게 그 명칭을 외우게 할 필요는 없다. 학교에 들어가면 다 배우게 된다. 지금은 우리 몸의 구멍이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아이가 궁금해 했던 그 구멍에 대해 설명해 준다. "여자의 몸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 바로 여기에, 이 구멍을 따라가면 엄마 뱃속이고 여기에 큰 방이 있거든. 이곳을 자궁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방에서 아이가 자란단다. 아이가 다 자라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이 구멍을 따라 나오는 거야. 이 구멍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찾은 눈구멍, 요도처럼 엄마 몸의 하나로 계속 있단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성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성적 호기심이나 궁금증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응답해줄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거침없이 쏟아내는 아이의 물음에 난감해할 것이지, 대견해하며 궁금증을 풀어나갈 것인지는 부모의 몫이다.

社 說

기름 유출, 철저한 방제·환경조사가 먼저다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이상 지났지만 여수와 남해 등 광양만 일대 해역에서는 기름띠가 여전히 퍼져 있다고 한다. 최근 양 지역 22개 어촌계를 돌며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연구단은 해상과 해안가에 엷은 기름막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도 지난 9일부터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여수 신월동과 국동 등에서 추가로 기름띠를 관찰했고, 남해군 일부 마을은 유출된 기름이 밀물에 역류돼 마을 하천까지 유입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잔존 유분이 넓은 지역에서 확인된 만큼 추가 방제활동과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경이 섣부르게 긴급 방제 완료를 선언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수시와 여수해경은 사고 발생 엿새만인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몰려드는 자원봉사자의 방제작업 참여를 제한했다. 오염 범위가 한정적이고 오염도도 낮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지역 수산물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어민을 위한 배려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정확한 기름 유출량이나 방제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고, 해양환경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내린 결정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바다 생태계 보호라는 큰 틀에서 세밀한 곳까지 기름 제거부터 철저히 마무리해야 한다. 사고 해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면밀한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다. 이는 향후 진행될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아울러 부산 앞바다 기름 유출에서 보듯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재발 방지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품에 성접대까지 막가는 공무원 비리

공무원과 대학 교수의 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무원과 대학 교수들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업체와 결탁해 낙찰을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는가 하면 보조금 횡령과 성접대 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비리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나주시 공무원 김모(46)씨는 간판정비사업 낙찰을 대가로 사업주 최모(48)씨로부터 136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한다. 광주와 전북지역 대학 교수 3명은 나주시와 장성군의 간판 정비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최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공무원 김씨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적발된 여수시 환경직 공무원 한모(43)씨는 건설업체로부터 설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 행사는 물론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례와 곡성군에선 공무원 12명이 보조금을 준 단체로부터 여행경비 6500만 원을 받아 외유를 갔다오는 등 도덕 불감증은 여전했다.

공무원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질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법이 대범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게 주된 원인이다.

지자체는 비리 공직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영구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각 대학과 경찰도 교수들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점에서 비리행위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無 等 鼓

폭설

"수부룩이 내려오는 눈발 속에서는/ 까투리 매추래기 새끼들도 깃들이어 오는 소리.…/ 괜찬타, …괜찬타, …괜찬타, …괜찬타,…"(서정주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 중에서)

가랑눈(조금씩 잘게 내리는 눈), 길눈(거의 한길이나 되게 많이 온 눈), 도둑눈(밤사이에 모르게 내리는 눈), 마른눈(비가 섞이지 않고 오는 눈), 잣눈(한자 깊이로 오는 눈), 진눈깨비(눈이 녹아들어 비와 섞여서 오는 눈), 함박눈(함박꽃송이처럼 굵고 탐스럽게 오는 눈)….

박용수 엮음 '우리말 갈래사전'을 펼쳐보면 눈(雪)을 부르는 우리말이 참으로 다양하다. 첫눈이나 진눈깨비, 눈발, 눈보라 같은 익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생소한 것이 숱하다. 진눈깨비와 눈비(눈이 섞여 내리는 비), 도둑눈과 밤눈(밤에 오는 눈)은 어떻게 다를까 싶기도 하다.

유년시절을 보낸 산골마을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었다. 밤새 내린 눈 무게를 못 이겨 뒤안 대나무가 부러지기도 했다. 동심에겐 비탈진 밭에서 지푸라기를 넣은 비료포대를 타거나, 눈사람을 만들고 이런저런 눈놀이를 맘껏 할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어른이 돼 맞는 눈은 결코 설렘이 아니다. 첫눈 정도에야 감상에 젖지만 대개는 먼저 엉금엉금 기어야 할 출·퇴근길을 걱정하기 일쑤다. 얼마 전 다녀온 히말라야 트레킹 역시 마지막 코스에서 많은 눈이 내리자 이튿날 쌍발 경비행기가 제대로 뜰 수 있을지 염려스럽기만 했다.

최근 강원도 일원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17일 영동 일원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비닐하우스 등 농가 피해가 큰 판인데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아닐 수 없다.

남녘도 이따금 큰 눈이 내릴 때가 있다. 오탁번의 시 '폭설'은 이런 상황을 정감있게 묘사했다.

"첫날은 '주민여러분! 삽들고 회관 앞으로 모이쇼잉! 눈이 ×나게 내려부렀당께!!…" 나머지 둘째 날, 셋째 날은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19일은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 봄은 슬그머니 곁에 다가오고 있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燮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 1부 2200-661 문화 2부 2200-65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본부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